

창조DNA육성을 위한 교육플랫폼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신득철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교수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교수 김응도

요즘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창조경제'일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녹색성장', '창조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창조경제시대의 부장산 개발' 등 어떤 주제, 어느 장소에서든 '창조경제'만 붙이면 그럴 듯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너무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 진다.

창조의 핵심은 아마도 '창의', '아이디어', '융합', '복합'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생겨난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통영의 벽화로 꾸며진 동피랑 마을이나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호텔이 있는 홈구장이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적 융합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창조경제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창조적 DNA, 창의적인 사고력이 없다는 사실일 것이고. 그 근본에는 단기적 목표주의, 성과주의인 우리의 교육 현실이 창조경제와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 버렸다. 특히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창의적, 융합적 업무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가 창조경제의 미래에 대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주체간 공유, 소통, 협력이 공존하는 허브역할의 글로벌 교육 시스템일 것이다. 학문의 영역, 사업의 영역을 넘어 상호 연관된 아이디어를 모아 프로젝트로 만들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들이 모여 융·복합 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플랫폼이야말로 말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관·공·학 등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교육플랫폼의 사례와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창조경제, 교육플랫폼
